

“혼이 담긴 희망찬 무대로 관객 만날 것”

광주시향 홍석원 상임지휘자

20일 교향악축제 서울공연, 네이버·KBS FM 생중계
5월 가족음악회...5·18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오스트리아 티롤주립극장 지휘자
“단원들과 음악적 소통 중요”



지난 14일 광주시립교향악단 홍석원(39) 상임지휘자 인터뷰를 위해 광주문화예술회관을 찾았다. 이날 인터뷰에 앞서 지난 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21 교향악축제 프리뷰 공연에서 그의 모습을 먼저 봤던 터라 공연에서의 예리한 눈빛, 섬세하면서 역동적인 모습을 생각했지만 그 반대였다. 큰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 잔잔한 미소를 띤 그의 모습은 왠지 친근하게 다가왔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제13대 홍석원 상임지휘자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 10회 이상 연주회를 진행하게 된다.

홍 지휘자와 광주시향과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여름 객원지휘를 통해 광주시향과 호흡을 맞췄지만 코로나 19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이들의 만남은 연습으로 끝이 났다.

홍 지휘자는 “지난해 객원지휘자로 와서 연습까지 했지만 공연을 무대에 올리진 못해 너무나 아쉬웠죠. 올해 상임지휘자로 오게 돼 전희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단원들과 만났을 때보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좀더 집중하는 분위기이고, 서로 잘해보자는 의지가 한층 더 느껴지는 듯 합니다. 특히 광주시향은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함, 혼이 담긴 소리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예요. 이전 연습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생각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는 부친시향 첼로 단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퇴임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어렸을 적부터 클래식 음악을 많이 접했고, 취미로 피아노를 쳤다. 그러던 중 작은외조부의 권유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그는 2007년 클래식의 본고장인 독일로 떠나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밟았고 오스트리아 티롤주립극장에서 5년간 지휘자로 활동했다.

13년간 외국에서 지냈다는 그의 마음 한편엔 항상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었다. 독일에서 지금의 아내와 선생님, 친구들, 동료 등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고, 지휘자로서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언젠간 귀국해 한국에서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지휘자의 능력과 덕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는 먼저 단원들과의 ‘민주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원들을 리드하고 오케스트라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지시를 하는 역할이지만 단원들과의 음악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휘자의 역할은 단원들이 연주를 하고싶도록 만드는 것이예요. 나만의 지휘보다는 우리 모두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아울러 단원들과 서로 존중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맞춰가며 연습하다 보면 성공적인 무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지휘자는 지난 9일 취임연주회이자 2021 교향악축제 프리뷰 공연을 마치고 오는 20일 서울 공연을 앞두고 있다. 레퍼토리는 피아니스트 손정범과 협연하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과 소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이다. 그는 스탈린 체제 하에서 억압받으면서도 항상 예술가의 자유를 표현하려고 애썼던 소스타코비치와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희생한 광주의 혼에서 공통점을 느꼈고, 그의 작품 중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교향곡 5번’을 연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의 자유를 되찾는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고 싶었다.

“관객분들이 광주시향이 얼마나 잘하나, 어디가 틀렸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작곡가가 이 곡을 작곡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작곡가가 곡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점이 무엇인지 대해 공감하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주하고 싶은 곡을 연주하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오는 5월 가족음악회를 준비중이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클래식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리버’ 만화와 클래식 음악을 함께 선보이는 무대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기념연주회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공연한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감히 5·18에 대해 함부로 평할 순 없지만,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영혼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희생당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화합을 노래한 베토벤 ‘9번 합창 교향곡’으로 그 의미를 기리는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또 지휘자가 직접 곡에 대해 해설을 들려주고, 클래식 공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을 비롯해 다채로운 곡들로 공연을 꾸려나갈 계획이다.

홍 지휘자는 마지막으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관객이다”며 “관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좋은 공연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교향악축제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며, 네이버 공연 라이브와 KBS 클래식 FM에서도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교향악단 홍석원 상임지휘자가 지난 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취임연주회 겸 2021 교향악축제 프리뷰 공연을 가졌다.



여수 디오션 호텔에서 오는 5월30일까지 열리는 강남구 작가 초대전.

강남구 작가 ‘매화’를 초대하다

30일까지 ‘별밤 미술관 in 신창’
5월30일까지 여수 디오션호텔

서양화가 강남구 작가가 화폭에 풀어내는 소재는 다양하다. 알알이 터지는 빨간 석류와 울퉁불퉁한 노란 모과, 해바라기와 동백 등 선명한 색감이 어우러진 작품들은 생동하는 기운을 느끼게 해준다. 무엇보다 강 작가는 오랜 기간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매화’를 그려왔다. 그의 매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화이트큐브 갤러리가 아닌, 다양한 공간에서 만나는 매화 작품은 색다른 느낌을 준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여파로 문화예술 활동이 주춤하고 있지만 강 작가는 인천 잇다스페이스 초대전을 시작으로 올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봄빛 가득한 야외공간에서 만나는 매화 그림이 눈길을 끈다.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해 쌍암공원에 야외 갤러리 ‘별밤 미술관’을 오픈했다. 시민들은 공원을 산책하

고 자연스레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색다른 문화를 경험했다.

광산구는 시민들의 호응에 따라 신창역사 근린공원에도 지난달 30일 ‘별밤 미술관 in 신창’을 오픈하고 강남구 작가를 초대했다. 강 작가는 개관 기념전으로 오는 30일까지 매화 작품 6점을 선보이고 있다. ‘매화를 탐하다’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전시는 다채로운 매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밤이면 문을 여는 전시장에서, 달빛과 함께 어우러진 매화를 만나는 기분은 색다르다.

강 작가의 작품은 여수 디오션 호텔에서도 만날 수 있다. ‘봄, 다시 설레임’을 주제로 오는 5월30일까지 열리는 초대전에는 대작부터 소품까지 50여점의 다채로운 작품이 나왔다. 젊은 시절 그랬던 풍경 작품부터 석류를 비롯해 해바라기, 연꽃, 매화 등 강 작가의 작품 세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이기도 한 이번 전시는 1층 아트 디오션 갤러리와 함께 로비 등 디오션 호텔 곳곳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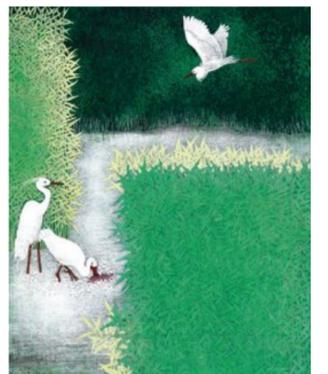
추순정 초대전 23일까지 영상강문화관 유튜브 채널

한국화가 추순정 작가 초대전이 오는 23일까지 영상강문화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자연과 함께 한 삶에 미술을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시공을 초월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의 모습을 습지의 갈대, 왜가리와 청둥오리 등을 등장시켜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자연을 디자인하다”, ‘꿈의 대화’, ‘녹색 정원’ 등의 작품에서는 하늘 높이 비상하는 왜가리의 자유로움을 통해 비상을 꿈꾸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티키카카’ 등의 작품은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의 하모니를 화폭에 풀어놓았다.

전시에서는 코로나 19와 함께 일상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를 소재로 한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을 지켜주는 마스크가 자연 속 동물에게는 치명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



‘녹색 정원’

품이다.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추 작가는 지금까지 5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S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가지런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